
 지역균형뉴딜 한국판뉴딜	<b>보 도 자 료</b>	작성과	공공데이터유통과
 행정안전부	2021년 2월 25일(목)조간 (2. 24.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대민 사무관 정철원
		연락처	044-205-2461 044-205-2472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

-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8개 마이꾸러미 서비스 개시 -
- (서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국민 데이터 주권 강화 -

- **(소상공인자금지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매장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요건 및 준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의하였다. 일전에 지원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을 내어 서류준비를 할 맘으로 문의하였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보동의만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함을 알게되었다. 일부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영업에 지장 없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청년 면접정장 대여 간편신청)** 취업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취업시장에서도 몇 차례의 면접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수입이 없던 B씨는 면접용 정장을 새로 구입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우연히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를 통해 **경기도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을 알게 되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했다.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안내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하나 고민했지만,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 마이꾸러미**를 활용하면 센터 방문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려 3분 만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덕분에 B씨는 일자리 사업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아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 **(은행신용대출)** 강원도 횡성에서 거주중인 C씨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은행신용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1시간 거리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고,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영업점에 문의한 결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은행신용대출마이꾸러미’**를 통해 간편하게 신분증 확인 한번 만으로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은행신용대출, 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월 24일(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하여 **데이터꾸러미**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제공자·정보수신자

- 또한,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 이번에 개시되는 8개 서비스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서류없이 이용하는 소상공인자금신청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자금신청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기관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 경기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간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 그간 경기도의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서류제출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 약 84만 명의 청년들이 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은행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비스 개선 (신용정보원)

- 은행과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신청을 위해 각 영업소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창구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빠른 금융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건강기록앱 서비스 출시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결과, 진료이력 및 투약정보 등을 보려면 민원인이 직접 담당 기관마다 문의를 해야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PHR)을 이용하여 본인의 투약이력, 건강검진기록, 예방접종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이 앱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채무조정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채무조정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인 소득 증빙 등 10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개인채무조정 상담창구(오프라인)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없이 바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연 10만 명의 국민이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데이터로 주택청약자격 간편 확인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자격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의 서류를 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인터넷 주택청약 시스템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주택청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주택청약 처리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 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한 후 점차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 요구하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의 시행(‘21.10.21) 전까지는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후 시행 이후부터는 제공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번	서비스명	주요내용	이용방법	시행기관
1	나의건강기록 마이꾸러미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 건강기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u>‘나의건강기록(PHR)’</u> (구글스토어) →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이력, 투약정보 등 확인가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02-6263- 8389)
2	은행신용대출 마이꾸러미	대출 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하는 서비스	<u>각 은행별</u> (온/오프라인) → 신용대출 신청하기 * 별첨 참고	한국신용 정보원 (02-3705- 5766)
3	신용카드신청 마이꾸러미	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	<u>각 카드사별</u> (온/오프라인) → 신용카드발급 신청하기 * 별첨 참고	
4	개인채무조정 마이꾸러미	과중 채무자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이용자가 방문하여 정보제공 사전동의서 작성 후 개인채무조정 상담에 활용	신용회복 위원회 (02-750- 1135)
5	소상공인자금 신청 마이꾸러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서비스	<u>‘소상공인정책자금’</u> (ols.sbiz.or.kr) → 자금신청절차 진행시 동의 기반으로 업무시스템에서 처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 -7150)
6	청약홈 마이꾸러미	주택을 분양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u>‘한국부동산원 청약홈’</u> (applyhome.co.kr) → 청약신청하기	한국부동산원 (02-550 -9081)
7	경기 일자리정책 고용보험확인 마이꾸러미	경기도 내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간편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u>‘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u> (apply.jobaba.net) →일자리사업별 ‘신청’버튼	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 9660)
8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확인 마이꾸러미	경기도 내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에 따라 면접정장대여 등을 간편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u>‘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u> (apply.jobaba.net) →일자리사업별 ‘신청’버튼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시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기관		서비스(상품)
은행 (신용대출신청)	국민은행	가계신용대출 전체
	농협은행	NH직장인대출V, 올원마이너스대출 등
	신한은행	쓸(SOL)편한 일반 공무원 신용대출
	우리은행	가계신용대출 전체
	하나은행	하나원큐 신용대출
카드 (신용카드발급)	국민카드	신용카드 신규발급 전체
	삼성카드	신용카드 신규발급 전체
	신한카드	신용카드 신규발급 전체
	현대카드	신용카드 신규발급 전체

※ 현재는 신용대출신청 및 신용카드발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서류에 일부 이용 가능하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공공정보 활용시 본인 확인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막판에 갈등을 봉합했다.

금융 마이데이터와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 확인 방식이 각각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위가 주도해 진행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안부가 주축이 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변화**

기존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원 요청</li> <li>2 민원서류 제출 요청</li> <li>3 민원서류 발급</li> <li>4 민원서류 제출</li> <li>5 민원서류 제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송 요구</li> <li>2 필요 데이터 제공</li> </ol>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받는 공공·행정 정보**

구분	증명서
<b>지방세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납세증명서</li> <li>•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부)</li> <li>•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li> <li>•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li> </ul>
<b>국세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납세증명서</li> <li>• 납세사실증명</li> </ul>
<b>고용·산재·보험료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li> </ul>
<b>건강보험·공적연금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li> <li>•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li> <li>•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li> <li>•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li> </ul>

**신용정보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서비스	내용
개인신용 정보 전송	신용정보법에 따른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칭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신용평가 가점부여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수신 꾸러미	예금, 적금, 퇴직연금(보통)을 가입하고자 할 때 수신(통장개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다음달 시작하는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접목시키면서 본인 확인 방식에 충돌이 생겼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정보제공을 위해 CI 처리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 는 본인 확인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다. 별도 해시값으로 저장되는 고유값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를 받은 자의 CI가 같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한 상황이다.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신해 CI 일괄변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했다. 즉, 금융 마이데이터에선 주민번호 없이 CI로 본인 확인이 모두 진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는 (CI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한다.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CI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공공 데이터 전송요구를 해도 고객 식별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금융위에선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하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CI를 확보해 금융쪽 마이데이터 전송요구에 따른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는 본인 확인 기관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본인 확인 기관 지정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사이트 가입·금융상품 이용 시 사용자가 자기 자신을 인증하는 절차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패스'(PASS)가 본인 확인 서비스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현재 이통3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한 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심사에서 탈락하고 토스만 재신청한 상황이다.

토스 관계자는 "서비스 초입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패스나 SMS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서비스 안정성이나 확장성, 사용자경험(UX) 측면에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여러 물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와 행안부는 CI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핀테크업체가 CI를 통한 본인 확인을 희망한 점도 고려됐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인증을 두 차례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행안부가 의견 일치를 보면서 내달 시작할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I로 인증 체계가 통일되면 7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면서도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융합할 수 있다.

7개 공공기관은 CI 도입과 함께 행안부 공공포털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CI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7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이다.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데이터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등 건강보험·공적연금 증명서 등이다.